

부처님 생애에 '나' 비춘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10월 11일부터 '팔상성도' 주제 8주간 강좌



광주불교사암련 · 지역신행단체 · 현대불교 공동주최

빛고을 광주에서 또 한번 '부처님 바로보기' 열풍이 시작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반인을 위한 열린불교 강좌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해 '불교 대중화' 바람을 일으킨 광주지역 신행단체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는 올해도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J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인간 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란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월운(동국역경원장), 지선(고불총림 백영사 유나), 지광(능인선원 주지), 수진(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통광(쌍계사 강주), 성열(강남포교원장), 원담(조계사 주지) 스님 등 선과 교, 포교를 망라해 이시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법사로 나선다.

법사님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전 수행하던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에서, 마지막까지 웃는 발과 발우하나라 사시다가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라"는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열반에 드신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생애를 여덟 가지 테마로 나누어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법을 설한다.

강의가 끝난뒤에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강의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사와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회로 이어갈 계획이다.

일정	법사	주제
10월 11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도솔래의상: 선해보살, 중생의 고통을 살피다
10월 18일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비림강생상: 길에서 태어나 웃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다
10월 25일	지선 스님(고불총림 백영사 유나)	사문유관상: 싯달타자, 생로병사의 인간고를 목도하다
11월 1일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 주지)	유상출가상: 위대한 포기, 성(聖)을 넘어 세상을 향하다
11월 8일	수진 스님(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설산수도상: 치열한 고행, 거짓된 나를 버리다
11월 15일	통광 스님(쌍계사 강주)	수행행마상: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연기(緣起)를 깨닫다
11월 22일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 원장)	녹원법상: 중생의 이익과 인박을 위해 법(法)을 설하다
11월 29일	원담 스님(서울 조계사 주지)	쌍림열반상: 인간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잠들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진화 스님(중심사 주지)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문제해결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며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과 사상에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춰줌으로 지혜로운 삶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는 광주시청 및 각 구청 불자회와 운전자회, 포교사단 등 광주지역 30여개 재가신행단체가 참가해 명실공히 호남을 대표하는 대중 불교 강좌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062)234-0090 이준엽 기자



'10대강백 초청 불교강설대법회' 첫날인 9월 16일 지관 스님이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전수행 통한 깨달음' 문 열었다

불교신문사(사장 혜월)가 공동 주최한 '10대 강백 초청 불교강설대법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남양주 불교신문사(사장 혜월)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가 공동 주최한 '10대 강백 초청 불교강설대법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불교신문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강설대법회 입제식은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혜월 스님, 회주 밀운 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월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경전의 세계를 넓고 깊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법회가 경전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월운 스님도 주례축을 대

표하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신문사 같은 법석을 마련한 것은 교종분찰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자 하는 염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불교신문사에는 그 특별함을 더 특별하게 한다"며 법회를 축하했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우리 지역의 경사"라고 법회의미를 부각시켰다. 이날 법회는 입제식과 지관 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금강경>을 주제로 한 강설로 이어졌다. (권민기 9·24·25면)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불교계 IPTV 사업 추진

종단협 이사회서 검토... 동북공정 관련 성명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가 차세대 멀티미디어로 주목 받고 있는 'IPTV 사업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종단협은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550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종단협, 조계종, BBS와,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중인 교계언론 등을 중심으로 IPTV 사업추진을 구체화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사무처는 조만간 방송 및 IPTV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종단협 자료의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명서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함께 발전시켜온 두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며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국의 불교도들은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불교출판계가 책발간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격 마케팅에 나섰다.

본지 595호 1면 '불교출판 판매 잘나간다' 보도 이후 한국 불교출판문화협의회(회장 원택)를 중심으로 불교계 출판사들이 여세를 몰아 출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첫 시발은 운주사가 맞았다.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대표는 "원고가 들어와도 어려운 여건때문에 그동안 많이 미웠었다"며 "묵혀뒀던 원고를 모두 꺼내 11월까지 매

주 1종씩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광출판사, 조계종출판사, 어시어문 등 주요출판사들도 한 달에 1종 이상을 발간해 전체적으로 보면 매주 10여종의 불교서를 계획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방향을 정했다.

민족사 성재영 기획영업부장은 "불황이어서 투자할 엄두를 못냈는데, 호전된 분위기를 살려 신문 광고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교출판문화협의회 회장 원택 스님은 "불교 출판사들이 불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과 수준 높은 편집 등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에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두: 북장역사, 상랑사, 영가천도, 불사)

진년보이지 · 진품지시오 작수임

紅茶園

010-6699-5555
02)744-3311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불교강설대법회

혜남 스님
회일경/9월 30일

불교신문사, 031)527-1951-3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